2017년 8월호 (제326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서가이 열친심

勉爾孜孜 惜寸陰 —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이자자 석촌음

老矣無能 徒自悔 —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의무능 도자회

頭邊歲月 苦駸駸 —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변세월 고침침

遺子滿籯金 —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자만영금

不如敎一經 —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여교일경

此言雖淡薄 —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언수담박

爲爾告丁寧 —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이고정녕

"제6회 둔촌백일장 성대히 개최"

- 비오는 궂은 날임에도 300여명의 참가자 모여 -

강동문화원(원장 양재곤)에서는 7월15일(토) 오전10시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참가자와 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제6회 둔촌백일장"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백일장 행사는 둔촌 이집선생의 충절과 효행, 학문적 업적 등 숭고하신 덕을 기리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강동구청과 廣州이씨 문중이 후원하고 강동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강동구 내 청소년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이 여섯 번째 되는 해이다.

이날 행사는 박우천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 내 · 외빈 소개, 양재곤 문화원장과 옥재 대종회도유사의 인사, 이해식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진선미 국회의원, 양준욱 서울시 의회의장 등의 축사와 격려가 있었다.

이어서 올해의 글제로 "동녘 빛, 소나기, 신호등, 둔촌동, 조국"이 강당 전면 스크린에 비춰지면서 박희(문학박사) 심사위원장으로 부터 글제 선정에 대한 설명과 대회규정 안내를 시작으로 두 시간 동안의 실력을 겨루는 백일장이 진행되었다.

이날 제출된 작품은 엄격한 심사 결과 64명의 입상자를 선정, 7월17일(월) 강동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아래 입상자 명단 참조)되었으며, 시상식은 9월1일(금) 오후 5시에 강동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제6회 둔촌백일장 수상자 명단

구 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성명	학교	성명	학교	성명	주소
장원	이하은	대명초 5학년	배은송	상일여고 2학년	김정순	강동구 상일동
차상 (2)	곽채윤	묘곡초 1학년	윤주호	광문고 1학년	이미현	강동구 고덕동
	임소은	고명초 5학년	장나영	상일미디어고 2학년	정경원	송파구 문정동
차하 (5)	고민서	명덕초 3학년	이준	광문고 2학년	박양미	강동구 명일동
	변지민	명덕초 3학년	오태훈	광문고 3학년	모은영	강동구 강일동
	윤서우	명일초 5학년	김수민	한산중 2학년	정호연	강동구 길동
	이선우	대명초 2학년	김혜주	상일여고 2학년	조성현	강동구 상일동
	최윤영	강명초 5학년	임서연	상일여중 2학년	김일단	강동구 고덕동
입상 (10)	최민준	천호초 5학년	이예진	상일여고 2학년	박원종	강동구 고덕동
	전혜진	묘곡초 5학년	송혜원	한산중 3학년	이수연	강동구 천호동
	이은유	명일초 2학년	김하연	한산중 1학년	강덕명	강동구 천호동
	권유빈	위례초 3학년	백소윤	둔촌고 2학년	이찬경	강동구 명일동
	손정원	강명초 6학년	김승현	상일여고 2학년	김윤지	강동구 천호동

구 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성명	학교	성명	학교	성명	주소
입상	김준	천일초 5학년	임효영	천일중 1학년	김진영	강동구 암사동
	박정빈	고명초 6학년	전주원	한산중 2학년	권경은	강동구 암사동
	이주희	대명초 3학년	최재원	동북중 1학년	임미영	강동구 둔촌동
	오유진	천동초 6학년	조예인	한산중 1학년	신향희	강동구 둔촌동
	문수진	한산초 6학년	강인서	상일여고 2학년	최복임	강동구 천호동

구 분	초등부		청소년부		시 상
	성명	학교	성명	학교	
특별상 (5)	황채원	고명초 6학년	정주현	동신중 3학년	강동구청장 시상 (상장만 수여)
	백지효	명덕초 3학년	이연우	한산중 3학년	
	문준영	한산초 4학년	이현호	상일미디어고 2학년	
	모영우	강일초 4학년	김주호	상일미디어고 3학년	강동구의회 의장 시상 (상장만 수여)
	김지민	고명초 4학년	황이현	한산중 1학년	

[둔촌백일장 인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廣州이씨 대종회 도유사입니다.

오늘 제6회 둔촌백일장을 맞아, 본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이해식 강동구청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도자님들과,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강동문화원 양재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백일장에 참가해 주신 청소년 및 일반 문학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이씨는, 경기도 광주를 본향으로 하는 문중으로, 이곳 강동구는 곳곳에 둔촌 이집선조님의 유흔이 깃들어 있어 저희 문중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지역이며, 금년은 선생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신지 69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문중의 중시조(中始祖)이신 고려 말 성리학자 둔촌 이집(遁村 李集) 선생의 효행과 충절, 그리고 선생께서 남기신 학문과 도덕정신 등 숭고하신 뜻을 선양(宣揚)하고, 아울러 강동구 내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문학적 소양을 발굴 육성함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백일장에 참여하신 문학도 여러분께서는 비록 제한된 공간에 모여,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범위 내에 작품을 완성해야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타고난 소양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맞이하는 둔촌백일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廣州이씨 대종회 도유사 玉載 –

2017년도 모범종인 및 효열상 · 특별장학생 소개

각 지파종회에서 추천되어 대종회 장학관리위원회 및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특별장학생과 효열상 및 모범종인으로 지난 6월10일 둔촌선조님 생신제 시 시상된 자랑스러운 종인들입니다.

◈ 모범종인(5명)

성명	생년	소속지파	공 적 사 항
이용헌	80세	사인공	창령 운곡서원 구기비 제막 후 24년간 관리봉사하며 후손이 없는 선대산소 벌초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옴.
이윤래	76세	광릉부원군	포천 이곡종회장으로 세일사제향 등 종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모든 종사에 솔선수범하는 등 종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음.
이진수	85세	문경공	신체적 장애(상이군경)가 있음에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종원간 인화단결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선대유적 보존 및 정화에 앞장서고 종사에 적극 참여함.
이시영	66세	좌의정공	창원에서 청장년 회장으로 선조현양과 종원간 화합 화친에 열심히 활동
이종인	50세	목사공	인천 소방공무원으로 수많은 공적을 쌓아 표창을 받는 등, 2017년도에는 "자랑스런 공무원" 으로 선정되어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광이회보 제322호(2017년 4월호)에 소개된 바 있는 廣李를 빛내는 모범종인 임.

◈ 효열상(7명)

구분	성명	생년	부(父 · 夫)	소속지파	공 적 사 항
열부	최금주 (隋城人)	1931	夫 故 병수	문경공	문경공 19대손 병수(炳洙:6.25전란시 전사)의 부인(慶州崔氏)으로 홀몸으로 슬하에 5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님을 받들고 시동생을 거느리는데 도에 어긋남이 없어, 열녀의 덕이 인정되어 무장향교에서 주관하여 경주최씨 열부비를 세워준바 있음.
열부	송은선 (礪山人)	1973	夫 용락	문경공	문경공 16대손 용락의 부인으로 친정과 시집이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늙으신 시부모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며 어려운 생활 속에 식당일과 폐지수거 등으로 남편의 약제와 집안 경제의 모든 책임을 맡아 오면서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음.
효부	안은상 (順興人)	1954	夫 종권	문경공	문경공 18대손 종권(종권)에게 시집와서 병중(중풍과 치매)에 있는 95세 시부모님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힘든 기색없이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으며, 트럭 운전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남편을 대신하여 틈틈이 생계를 위해 가판 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현모양처 임.
효자	이종민 (22대)	1959	父 익재	광천부원군	산재사고자이고 판교 세차장에서 일하며 편모슬하에 효성이 지극함
효부	이선미 (延安人)	1977	夫 정수	광천부원군	광주에서 시아버지를 10년간 병간하는 효부
효자	이용현 (20대)	1942	故 성래	광원군	20대에 아버님을 여의고 56년간 홀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며, 15년 이상이나 노환이 있음에도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효자임. 종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300만원을 포상했는데 화수회에 기탁하는 모범종인 임.
효자	이시일 (24대)	1986	父 종환	좌의정공	장애인으로 모친도 가출한채 4급시각장애자인 부친과 3급지체장애자인 동생 등을 돌보는 효자

◈ 특별장학생(5명)

성명	학년	부(父)명	소속지파	선 정 내 용
주희(姓姬)	고3	창수	광천부원군	진건고 3학년으로 아버지는 공사현장에 다니고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며 어려운 가정에서 가족간 우애있고 효도하는 학생임.
윤정	고3	창훈	광원군	아버지가 뇌암수술로 활동을 못하고 엄마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도 병수발을 극진하게 하며 학업에 열심히 하여 우등생 표창과 교육장려상 등을 받으며 꿋꿋하게 공부하고 있음.
용수	고2	故 종주	참판공	이천제일고 2학년으로 기초생활 수급가정에서 혼자 노모와 4남매를 돌보며 열성으로 공부하는 학생임.
명수	고1	故 종명	좌통례공	강화도고 1학년으로 부친이 사망하고 시각2급 장애인 어머니와 생계지원도 못받고 극진히 효도하며 공부하는 학생.
보람	중2	故 종명	좌통례공	위 학생의 동생으로 심리지원 치료를 받으며 어머니께 효도하며 공부하는 학생.

7월 재경화수회 정기모임

재경화수회(회장 명환)는 7월17일(월) 오후6시30분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8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제379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명환 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회순을 바꾸어 국민의례에, 신입회원 소개, 공지사항 전달, 대종회 옥재 도유사의 인사와 대종회 소식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입회원으로는 광릉부원군파 종철, 좌통례공파 용주(신임 총무유사)회원이 소개되어 환영의 박수와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종철회원은 청장년계, 용주회원은 3계로 소속되었다. 공지사항에 있어서는 산악회 재석 회장이 23일 산악회 모임(어린이대공원 걷기)안내, 충교 총무의 8월 휴회 및 청장년연합대회 참석에 관한 안내 등이 있었다.

이어서 대종회 옥재 도유사께서 인사의 말과 대종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 8월10일 지파도유사 및 임원회의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8월에 계획된 전국 청장년연합대회에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늦게 도착한 명환 화수회장의 인사와 "판서공 하원대감의 변설13조"를 주제로 한 보학 강의가 지난달에 이어 부언 설명되었는데, 이는 지난 강의 후 일부 오해가 있는 종인들의 이해를 돕고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강의가 끝난 후 회원들은 각 계별 모임을 갖고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화수회 총무 충교 記 –

廣州이씨 "광문회" 7월모임 가져

광문회(회장 주영 국회의원)지난 7월6일 목요일 오후6시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2017년도 7월모임을 가졌다.

종철 광문회 부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주요 참석인사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진행된 회장 인사에서 주영 회장은 "오랜만에 우리 광주이씨 어르신과 회원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옥재 대종회 도유사님을 비롯,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한 후, 모임 때마다 좋은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퍼시픽호텔 종철회장께 고마움을 표하였다. 또한 오늘 특강을 맡아 수고해 주실 비타민C로 유명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왕재 교수(본문 광릉부원군파 21대손)를 자세히 소개하고, "관정 종환 회장께서 특별히 광문회에 초청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어렵게 모셨다"며 "오늘 강의가 회원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다음은 옥재 도유사께서 대종회 소식, 그리고 종위 청장년 연합회장으로부터 8월26일~27일(2일간) 고창에서 개최 예정인 "제24차 전국 청장년연합대회"에 대한 설명과 많은 참석 및 성원을 당부하는 인사가 있었다.

끝으로 이날의 특강 "비타민C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전략"이라는 주제로 왕재교수의 강의가 회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시간40여 분간 진행되었다.

본 강의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광주이씨 대종회 홈페이지(www.gwanglee.or.kr) 동영상자료실에 게재하였으며, 종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 광문회 부총무 종철 –

遁村先祖 이후의 역사(56)

이 面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할 譜學을 上代로부터 계속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충민공(忠愍公) 휘 상안(諱 尙安) 행장(行狀)

公의 諱는 상안(尙安)이고 字는 정이(靜而)이다. 관찰사(觀察使) 세정(世貞)의 현손(玄孫)이고 증조(曾祖)는 재령군수(載寧郡守)와 증좌승지(贈左承旨)를 지낸 수진(秀秦)이며 祖父는 서산군수(瑞山郡守)를 지낸 맹창(孟昌)이며 二子를 두셨는데 長子의 諱는 광국(匡國)이시고 연산현감(連山縣監)과 贈 제용감정(濟用監正)을 하셨고 次子의 諱는 광록(匡祿)이신데 충의위(忠義衛)를 지내셨다. 公은 忠義衛公 次子로서連山縣監公의 系子로 入養되시었다. 公은 宣祖 己亥(一五七五) 四月二日 辛未日에 出生하시고 宣祖 癸卯年에 式年試武科에合格하시었다. 容貌와 氣質이 俊偉하고 器局이 弘澤하며 少年時節부터 剛直하여 屈하지않는 性格을 지니셨다.

武科에 及第한 이듬해에 宣傳官을 除授받으시고 一六一一年(光海三年)에 訓練院 習讀에 이어 一六一五年(乙卯)에는 海州判官으로 發令받았으나 病苦로 인하여 免官되시고 이듬해에 谷山府使가 되시었다. 一六一八年(光海十年)에는 嘉山郡守로 옮겨가시니 西邊의 要塞라 公이 郡에 도임(到任)하여 오래된 病弊를 다 없애고 淸廉한 이름을 남겼다. 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에 滿期가 되어 轉勤을 하게 되니 百姓들이 頌德碑를 세웠다. 一六二三年 仁祖反正 후 癸亥年에 通政大夫 折衝將軍에 階級을 올려 昌洲僉使로 삼으니有能하다고 朝廷에 所聞이 들려 여러 번 褒賞을 받았다. 해가 넘어 '江界 都護府使로 옮기니 손을 씻고 奉公하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疲勞를 잊고 百姓의 부세(賦稅)와 軍兵의 給料를 모두 條理있게 處理하여 善政을 하시였다. 任期가 차서 官職을 그만두고 鄕里로 가던 途中 丁卯年(仁祖五) 一六二七年 正月十三日 밤에 胡兵이 鴨綠江을 건너 연달아 있는 열군(列郡)을 함락(陷落)시키고 無人之境같이 쳐들어와 正月十九日에는 安州城 동쪽가까이 浸透하였다는 所聞을 듣고 官職은 解任되어 鄕里로 내려가는 途中이었으나 장수(將帥)가 어찌 國難을 當하였는데 목숨을 아낀 다는 것은 臣民의 義理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회정(回程)하여 安州城에 달려가서 自願의 別將이 되어 兵使 南以興과 城을 지킬 計劃을 세웠다. 그때 急作스럽게 召集된 城中軍民과 연달아 이어 들어오는 隣近 郡의 首領 및 軍卒들과 主客 老弱者를 合하여 數千名 未滿이었고 公은 手下에 한명의 軍士도 없이 단지(但只) 칼과 활만 가지고 殉國 할 決心을 하였다. 적과 싸워 勝利할 戰勢가 못되어 城안 사람들이 城을 保全하지 못할 것을 알았으나 公을 비롯한 모든 軍民은 忠義로서 서로를 激勵하고 죽을 맹서(盟誓)를 하였다. 그 敵중에는 光海君이 胡兵과 싸우라고 派兵한 우리나라 將師 姜弘立과 蘭英이 投降하여 背反한 者가있어 城外廓에서 휘파람을 불며 북을 치면서 城밖을 떠들썩하게 시Rm럽게 하면서 말하되 强弱의 形勢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다。城이 陷落되어 죽어서 魚肉이 되지말고 和解하여 살길을 찾으라고 하였다. 이때 公께서 이소리를 듣고 큰소리로 高喊을 쳐 대답해 가로되"우리는 임금님의 命을 받아 城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서 한번 죽는 것이 職分이다. 어찌 너희 무리처럼 賣國하여 목숨을 아껴 제몸을 위하는 짓을 하겠느냐" 고 외치시었다. 敵이 軍士를 整列해가지고 城을 외어싸고 육박하니 城위 담에 올라가 公을 비롯한 모든 將士와 더불어 종일 싸워 해가 저물어 敵이 물라갔다. 다음날 아침 城동쪽 얕은 곳으 로 敵이 기어 올라와서 集中攻擊해 옮으로 인해 守卒들이 놀라 分散하였고 公은 樓에 올라 활을 쏴 敵을 無數히 射殺하였으나 화살은 다 쓰여졌고 칼은 꺽어지고 힘이 거의 다 빠졌을때 우리 兵卒들이 성위 담에서 화통(火筒)에 붙은 불이 거술러 올라와 城안에 싸여있는 火藥庫에 불이 붙어 一時에 爆發하여 兵卒은 흩어지고 불에 타죽는 者가 많았다. 해지는 무렵에 敵兵이 城을 넘어 城안으로 몰려들어와 참살(斬殺)당하는 者가 무수히 많았다. 兵使 휘하(麾下) 모든사람들이 形勢는 궁핍(窮乏)해지고 힘이 다빠져 防禦할 수가 없어 火藥 불속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는데 公은 城이 陷落되니 左右를 바라보며 말하되 "몸을 바쳐 保國함이 오늘에 있도다. 男兒의 일을 마치었으니 어찌 限이 될 것이냐" 하고 드디어 安州城 主將 南宜春君과같이 火藥 불더미에 몸을 던져 타 죽어 忠誠을 다하시었다. 이날이 正月二一日이고 享年 五十三歲이시다. 副將과 사환(使喚)들도 公을 쫓아 다타죽어 한사람도 살지 않았다. 적이 물러간 다음에 公의 시체(屍體)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衣冠을 廣州大院里 先塋下 卯坐에 安葬하였다. 右贊成에 贈職되고 諡號는 忠愍이시다. 安州 忠愍詞에 配享되시고 肅宗祖에 忠臣 정려(旌閭)를 받으셨다. 不遷之位로 代代孫孫 祭祀를 지내도록 命하였다。

충민공 묘소(성남시 하대원동 소재)

충민공(휘 상안) 정려각

神道碑 碑文

銘 曰

生而苟生(생이구생) 生曷爲榮(생갈위영)
死得其死(사득기사) 死亦猶生(사역유생)
而身之亡(이신지망) 而節之全(이절지전)
是族以銘(시족이명) 宣永其傳(의영기전)
살았다고 구차하게 살면 사는 것이 무슨 영광이랴
죽어서도 그 죽음을 옳다하면 그 죽음도 오히려 삶과 같다.
생각하건데 이몸은 없어져도 도리어 그 절개 온전하도다.
이것이 족하기에 명하노니 마땅히 길이길이 전하소서

拔取文獻 (人物考. 廣李世跡. 忠愍公事蹟)

충민공(忠愍公) 상안(尙安 1575~1627)의 신도비명(神道碑銘)

통정대부(通政大夫) 전행(前行) 양주목사(楊州牧使) 백헌(白軒) 이경석(李景碩) 찬(撰)

통정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隷院 判決事) 김광현(金光炫) 篆(전)

지난 정묘(丁卯 1627)년에 북쪽 오랑케가 쳐들어와 안주성(安州城)이 함락되었을 때에 공(公)이 별장(別將)으로 싸우다 전사하매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겸 판의금부사{兼 判義禁府事}를 추증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케 하는 한편 담당관으로 하여금 그의 집에 부의(賻儀)를 전하게 하였다。그로부터 五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들 면행(勉行)이 나를 찾아와 비명(碑銘)을 부탁하

매 내가 말하기를 "공의 죽음은 실로 장렬한 죽음인지라 공경대부로 부터 의현(義賢)이라 하지 않음이 없고 또한 현창하여 오래도록 전해져야 할 일이라면 국사(國史)에 실려야 하겠거늘 구태어 나의 입을 빌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족속으로 치면 공의 아우가 되니 어진 족형(族兄)을 위해 세예(世系)를 서술하고 일의 전말을 기록하는 것을 내가 감히 사양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응낙하고 이에 서술한다. 공의 휘(諱)는 상안(尙安) 자(字)는 정이(靜而) 본관(本貫) 은 광주(廣州)이다. 고려조에 이집(李集)이란 분이 있어 승문원 판전교시사(承文院判典校寺事)를 지낸 후 좌찬성에 추증되고 호 (號)가 둔촌(遁村)이니 곧 공의 중시조 (中始祖) 되는 분이다. 그후 四대가 내리 역사에 포열(布列)하니 지직(之直)이란 문은 형조우참의(刑曹 右參議)로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겸한 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휘(諱) 인손(仁孫)이란 문은 우의정(右議政)으로 시호가 충희공(忠僖公)이며 휘(諱) 극돈(克墩)이란 분은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에 책록되어 지위가 좌찬성(左贊成) 으로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졌는데 시호는 익평(翼平)이다. 휘가 세정(世貞)이란 분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역임한 바 곧 공의 고조(高祖) 이시다. 관찰사공이 수진(秀蓁)을 낳으니 재령군수(載寧郡守)를 지낸 후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고 승지공이 맹창(孟昌)을 낳으니 서산군수(瑞山郡守)이다. 그리고 군수공이 두 아들을 낳으니 맏아들은 광국(匡國)인데 연산현감(連山縣監)을 지낸 후 제용감정(濟用監正)에 추증되었고 둘째는 광록(匡綠)인데 충의위(忠義衛)를 지냈다. 충의위공의 배위(配位)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사인(舍인) 권적(權適)의 딸이자 판관(判官) 권집(權諿)의 손녀인데 만력(萬曆) 을해(乙亥 一五七五) 四월二일(辛未)에 충민공을 낳았다. 맏이 현감공은 청주한씨(淸州韓氏)로 정국공신(靖國功臣) 영興부사(永興府使)를 지낸 한세창(韓世昌)의 손녀이자 충의위 를 지낸 한 개(韓 盖)의 딸에게 장가갔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공으로써 뒤를 이었다. 공은 어려서 부터 의지가 굳고 강직하였다. 계묘(癸卯 一六O三)년 식년시(式年試) 무과(武科)에 올라 갑진(甲辰一六O四)년에 선전관(宣傳官)을 배수(拜受)하였는데 병오(丙午一六O六)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경술(庚戌 一六一O)년에 무신(武臣)으로 제배(除拜)되어 겸선전관이 되었다. 신해(辛亥一六一一)년 부친상을 당하고 탈상후에는 훈련원습독(訓鍊院習讀)이 되었다. 을묘(乙卯一六一五)년에 해주판관(海州判官) 하기 전에 다시 곡산군수(谷山郡守)로 이배 되었다. 무오(戊午 一六一八)년에 다시 가산군수(嘉山郡守)에 이배(移拜) 되었으니 서쪽 변방을 중시한 때문이었다. 공은 가산군에 도임(到任)하여 오랜 폐습을 제거하고 청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 바 임기가 차서 체임(遞任)하니 백성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칭송하였다. 계해(癸亥一六二三)년에 품계가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라 창주 첨사(昌洲 僉使)가 되었는데 능력이 임금에게 까지 알려져 여러번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강계부사(江界府使)로 전직되어 부임하니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로도 잊은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성을 다하였고 백성에 대한 징세나 군사에 대한 물자 지급 등에 있어서는 각각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였다. 정묘(丁卯一六二七)년에 이르러 임기(任期)를 채우고 귀임(歸任) 途중(途中) 적병(敵兵)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여러 고을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강개(慷慨) 의분(義奮)하여 말하기를 "十년간 변방에 있으면서 일편단심 나라에 몸바치기기로 결심하였던 바 벼슬이 지금 비록 체직(遞職) 상태지만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삶을 도모할 수는 없도다" 하고 이내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이가 주둔(駐屯)하고 있는 안주성(安州城) 막부(幕府)로 달려 들어가 자원(自願)해서 별장(別將)이 되어 선전분투(善戰奮鬪)하였으나 중과부족(衆寡不足)으로 성(城)이 함락(陷落)되니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과 더불어 같은 날 절의(節義)를 위해 전사하니 공이 거느리던 비복(婢僕)들도 모두 공을 따라 죽어서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되었으니 군자는 여기서 공이 군사들의 마음을 또한 깊이 샀음을 알겠도다. 적군이 물러가고 공의 시체를 찾으려고 성안을 살살이 뒤졌으나 찾지 못한채 그냥 돌아와 의관(衣冠) 만으로 광주선산(廣州先山)의 묘좌유향(卯坐酉向)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때에 공의 나이 五十三세였는데 성이 함락되던 날을 공의 기일(忌日)로 삼으니 정월 스무 하룻날이다. 아! 장부(丈夫)가 죽어서 그 행의(行誼)를 온전하게 하였다면 즉한 것이며몸둥이가 불행하게 흙속에 버려진다 한들 또한 무엇이 한(恨)될 게 있겠는가. 공의 배위(配位)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된 청주한씨(淸州韓氏)로서 충의위를 지낸 한경수(韓景洙) 의 딸이다. 一녀一남을 날았는데 딸은 생원(生員) 이식(李埴)에게 시집갔고 아들은 바로 나에게 비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生而苟生 生曷爲榮　살더라도 구차하게 산다면 그 삶이 어찌 영화스런 일이겠는가

死得其死 死赤猶生　죽더라도 죽을만하게 죽는다면 그 죽음은 오히려 산 것일러니

而身之亡 而節之全　그 몸의 장렬한 죽음 절의(節義)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是足以銘 宣永其傳　이것으로 명(銘)을 하기에 족하니 응당 영원토록 전해져야 되리

황명(皇明) 숭정(崇禎) 四년(仁祖九、一六三一) 四月 日 세움

사위 생원 이식(李埴) 書

아! 비석을 세우는 것은 기적(紀蹟)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 충민공(忠愍公)의 절의(節義)와 사공(事功)을 한 자쯤 되는 돌 면에다 기재하여 후인의 이목(耳目)에 빛나게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간에 풍우로 마모가 되고 이끼가 껴서 글자가 훼결(毁缺)되고 누추한 곳에 버려져 있으매 자손된 도리에 어찌 감히 내버려 들 수 있겠는가? 이에 힘을 다해 재력을 모으고 다시 새겨 중건(重建) 함으로써 영세토록 후멸(朽滅)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第四 기해(己亥 一八三九) 十一월 일

七대손 기수(基守) 근식(謹識) 七대손 병덕(秉德) 근봉비명(謹奉碑銘)

서손(庶孫) 기문(基文) 기조(基祚) 병참(竝叅)

진사(進士) 전주(全州) 이상중(李尙中) 전(篆)

족후손(族後孫) 진사(進士) 기렴(基濂) 서(書)

충민공(忠愍公) 이공상안(李公尙安)의 신도비(神道碑)는 본래 一三六一年(仁祖九 辛未) 四월에 창건(創建)되었다. 공(公)이 만주족(滿洲族) 후금군(後金軍)과의 안주성(安州城) 전투에서 분전(奮戰)중 장렬하게 순사(殉死)한 인조(仁祖) 이경석(李景奭)이 비명(碑銘)을 찬(撰)하고 장례원 판결사(掌隷院 判決事) 김광현(金光炫)은 전(篆)을 쓰고 공의 사위인 생원(生員) 이식(李埴)이 글씨를 썼다. 그리고 신도비를 세우고 얼마 후에 공에게 조정으로부터정려(旌閭)가 내려짐과 동시에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대대손손 치제(致祭)토록 하라는 하명(下命)이 있었

다. 한편 숙종조(肅宗朝)에는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과 더불어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에 배향(配享) 되었다. 또한 그 후 백헌 이공(李公)은 자품(資品)이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까지 올라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경영경연사(兼領經筵事)와 세자사(世子師)를 역임하고 문충(文忠)이란 시호(諡號)까지 받았다. 그러나 신도비를 창건한지 二百여년 춘풍추우(春風秋雨)의 유장(悠長)한 세월 속에 풍화(風化)로 말미암아 비석(碑石)의 각자(刻字)는 마모되고 이끼마저 낀채 누추하게 퇴락(頹落)하매 一八三九(憲宗五、己亥)년 十一月에 뜻있는 후손들이 힘을 모아 다시 새겨 중건(重建)하니 현존하는 신도비이다. 당시 공의 七대손 기수(基守)가 발문(跋文)하고 九대손 병덕(秉德)은 백헌의 당초 비명(碑銘)을 받들며 서손(庶孫) 기문(基文)과 기조(基祚)를 병참(竝叅)시킨 가운데 진사(進士) 전주 이상중(全州李南中)이 전(篆)을 쓰고 일가 후손 진사 기렴(基濂)은 글씨를 썼다. 그러니 중건 이후 一百七十여 성상(星霜)에 불과함에도 그간의 풍화작용(風化作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각자가 마모(磨耗)되어 애석하게도 만고(萬古)에 길이 빛날 공의 충절(忠節)과 사공(事功)을 알아볼 수 없게 되매 다시금 후손들이 정성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본래의 신도비 옆에 이 비석(碑石)을 세운다.

충민공(忠愍公) 서거(逝去) 三八四주년

西紀二O一一년 九월 일

廣州李氏忠愍公宗中 禮立

十一代孫 容培 十四代孫 楨洙 謹奉 碑銘 十三代孫 鍾三 十四代孫 東洙 竝叅

漢陽大學校敎授 文學博士 全州 李完宰 謹識

지파도유사글 광릉부원군파

광릉부원군의 정치적 위기

"위기(危機)에서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러 글을 통해서 우리 廣陵府院君 先祖님의 공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세상사 공적(功績)이 있으면 과오(過誤)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여 본다.

광릉부원군께서는 성종24년(1493) 관직이 영사(領事)로서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바 있다.

일명 "수참선(큰 짐을 싣는 배를 '조운선' 이라고 하며, 이를 인도하는 작은 배를 '수참선' 이라고 한다)사건"이다. 1493년 당시, 관직이 영중추부사(정1품)이시고 전함사 도제조(조운선과 함선을 관리하는 장)로 벼슬을 겸직 하시면서 잠시 "수참선"을 빌려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광릉부원군께서는 놀고 있는 배를 타인에게 잠시 사용하게 배려하였고, 본인 또한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수참선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사헌부와 사간원으로부터 탄핵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당시 사헌부 장령(정4품) 김수동과 사간원 정언(정6품) 유숭조가 어전(御殿)에서 광릉부원군을 국문 할 것을 임금께 주청(奏請)드린다. 또한 사간원 헌납(정5품) 홍한은 재차 국문하기를 임금께 거듭해서 아뢴다. 뿐만 아니라 사헌부 집의(종3품) 민효증 또한 임금께 국문을 하도록 간곡히 아뢴다. 당시 광릉부원군께서는 전함사(典艦司)의 長으로, 놀고 있는 배를 잠시 빌려 사용한 것이 큰 화를 부른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에 고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작은 기물 하나라도 사적(私的)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릉부원군께서는 말년에 작은 과오(過誤) 하나로 인하여, 심적으로 고통이 크셨으리라 생각이 되며, 평소 검소하시고 청렴결백 하시며 사알(私謁)이 없으신 분으로 정평이 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럼 당시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광릉부원군을 국문 할 것을 임금께 주청 드린 내용을 적시해본다. 1493년 10월15일 광릉부원군께서는 경연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臣)이 '수참선'을 빌려서 사용하였으니 대죄(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놀고 있는 배를 빌려 쓰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10월16일 사헌부 장령 김수동과 사간원 정언 유숭조가 아뢰기를, "듣건 데 이극배는 전함사 도제조로써 관선을 빌려 썼다고 하는데 국문을 당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극배는 한가한 때에 배를 빌려 썼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한 10월17일에는 사헌부 장령 양희지와 사간원 정언 유숭조가 와서 광릉부원군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다. 10월19일 경연에 강(講)을 마치자 사헌부 장령 김수동과 사간원 헌납 홍한이 아뢰기를, "이극배는 전함사 제조로서 소관(所管)의 배를 빌려 썼으니 국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선(官船)을 빌려써서 관(官)에 일을 폐하게 하였으면 처벌 할 만하지만, 일없이 한가한 때에 빌려 쓴 것은 작은 과실이다. 어찌 이것으로 대신을 국문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시 홍한이 아뢰기를, "이극배는 감림(일에 잘못이 없도록 살피고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현지에 나감) 하는 장(長)으로서 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죄를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자복하였으니 다시 죄를 더할 수 없다" 하였다. 10월20일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민효증이 임금께 아뢰기를 "대저 제사(諸司)에는 간혹 제조(提調)가 없는데, 전함사(典艦司)에는 제조를 두고 또 도제조를 둔 것은 주선(舟船)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대신으로 하여금 감독하고 영솔하게 하여 남에게 사사로이 빌려 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극배는 도제조로써 남에게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을 운반하기까지 하여 관(官)의 일을 폐하게 하였으니, 대신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같은 재상(宰相)으로서 다른 재상은 모두 이미 국문을 받았는데 이극배는 도리어 감림(監臨)하는 장(長)으로서 홀로 면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조로서 사용한 것은 과연 잘못이다. 그러나 관(官)의 일을 폐한 것이 아니므로 추극(推鞫)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민효증이 다시 아뢰기를 "낮은 관리의 범한 바는 오히려 간혹 용서 할 만하나 이극배와 같은 재상은 이미 삼공(三公)을 지냈으니, 그 마음가짐을 더욱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한 유숭조가 아뢰기를 "상교(上敎)에 이르시길, '대신을 국문할 수 없다.' 하셨으나 이극배가 이미 대신의 도리를 잃었는데 어찌 대신으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다시 민효증이 아뢰기를 "다른 재상만 국문하고 이극배는 국문하지 아니하면, 조정의 의논이 반드시 사헌부를 단지 전지(傳旨)만 받들고 국법은 거행하지 못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임금은 좌우를 돌아보며 대신에게 물었으나 대답하는 자가없으니 말하기를 "반드시 국문한 뒤에야 죄를 과(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또 민효증 유숭조가 아뢰기를 "국문을 아니 하면 어떻게 죄를 정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극배는 이미 자복하였다. 대저 2품 이상은 비록 국문을 마치더라도 마음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반드시 말하기를 '성상께서 재결(옳고 그름을 가려서 결정함)하여 시행 하소서' 하며, 조율(照律)하게 한 뒤에야 조율하여 아뢴다. 지금 비록 국문하지 아니 하더라도 마침내 반드시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라고 말할 것인데 또 어찌 국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다시 동지사 채수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와 같은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계동이 아뢰기를 "율문(律文)의 다른 나머지 조문(條文)에는 감림자 와 준 자 빌려 쓴 자의 죄가 각각 등(等)이 다르지만 선척(船隻)의 경우에는 죄를 다르게 처결하지 않습니다." 하자 민효증이 말하기를 "지금 이계동이 아뢴 율문(律文)의 뜻은 무엇을 이르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극배에게 아첨하여 비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상의 앞에서 아뢰는 바가 이와 같은데 밖에 있으면 어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다시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과연 차례를 잃고 이를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은 율문에 다른 일을 감림(監臨)과 빌려 준 자의 죄가 각각 다른데, 선척(船隻)은 감림과 빌려 준 자가 율(律)이 같고 다르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신이 어찌 아부하여 비호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아뢰니, 민효증이 다시 아뢰기를 "이계동이 무단히 율문으로서 아뢰었으니,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스스로 옳다고 여겨 억지로 변명하니, 신 등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 등은 직무에 있기가 민망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소민(小民)이라 하더라도 법률 밖의 죄를 가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대신이 아니겠는가? 비록 조율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율할 것이다. 또 실정이 이미 드러났으니, 함문(緘問)하여 승복한 뒤에 조율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계동이 말한 바는 어찌 비호(庇護)하는 바가 있어서 말하였겠는가?" 하였다. 이와 같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광릉부원군을 국문할 것을 임금께 끈질기게 직언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광릉부원군께서는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하여 당하관들로 부터 수모를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정 기관들이 얼마나 철두철미 하게 업무를 수행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광릉부원군께서는 이 일이 봉합된 이후 24일 만에(1493년11월6일)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地下 萬人地上)인 영의정(領議政)에 대배(大拜)를 받으셨다.

인간은 신(神)이 아닌 이상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함선(艦船)의 장으로서 놀고 있는 배를 잠시 빌려 사용하였는데 무슨 죄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으나, 또한 과오(過誤)가 무엇인지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도유사 종선 –

창녕 운곡서원(昌寧 雲谷書院)

■ 운곡서원 구기비문(雲谷書院 舊基碑文)

세상에서는 선철(先哲, 선현〈先賢〉)의 영덕(令德, 미덕〈美德〉)이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支柱)가 되어 왔고, 그런 분들에게는 거의 사전(祀典, 제사 예전〈祭祀禮典〉)이 베풀어졌는데, 이는 고대(古代)의 제도(制度)이기도 하다. 국조(國朝)[1]에서는 오직 문(文)과 예(禮)를 숭상(崇尙)하여 德으로써 인도(引導)하고 예절(禮節)로써 다스렸기 때문에 더욱 성(盛)하였다.

창녕치북 운봉리(昌寧治北 雲峰里)에는 종전(從前)에 雲谷書院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이씨(李氏)의 선열 육현(先烈 六賢)을 봉안(奉安)한 곳이었다. 李氏는 광주(廣州)의 계출(系出)로 둔촌선생 집(遁村先生 集)의 후예(後裔)이다.

연세(連世)하여 충효(忠孝)로 저현(著顯)한 분(명현〈名賢〉)이 많았기 때문에 남향(南鄕)의 진신(搢紳)[2]들이 유제(遺制)[3]대로 숭봉(崇奉)하고자 하여 처음에는 향당(鄕黨)[4]에서 의논(議論)하고 다음에는 도산원(陶山院,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태학(太學, 성균관〈成均館〉)에 고(告)하여 영조 계사(英祖 癸巳)에 원사(院祠, 雲谷書院)를 창건(創建)하였다.

철종 계해(哲宗 癸亥)에 예조판서 홍대규공(禮曹判書 洪大圭公)이 상언(上言) 하고서 비로소 완문(完文)과 관자(關子)가 감영(監營)에 전치(傳致)되어 의절(儀節)을 거행(擧行)하였는데, 한결같이 사액원(賜額院, 賜額書院)의 규례(規例) 에 따르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체(事體, 사태〈事態〉)가 매우 중(重)하여지고, 한편 사자(士子, 사인〈士人〉)들의 강학(講學)하는 처소(處所)가 되었는데, 고종 무진(高宗 戊辰)에 이르러 조령(朝令, 조정명령〈朝廷命令〉)으로 훼철(毁撤)되어 황허(荒墟, 폐허〈廢墟〉)로 변하지 우금(于今) 백수십년이 되었다.

의관(衣冠)을 갖춘 선비(유생〈儒生〉, 장보〈章甫〉)로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서성거리며 자탄(咨歎, 애석적 탄식〈哀惜的 歎息〉)하지 않는 사람 없었거늘 하물며 자손(子孫)으로서 아직도 이곳에 안접(安接, 태평생존〈泰平生存〉)하면서 조석(朝夕)으로 첨망(瞻望, 첨시〈瞻視〉)하기만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心情)을 이해(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近來)에 이르러 모임이 있으면 의례(依例)히 서로 말하기를 방내(邦內, 국내〈國內〉)에서 毁撤 당한 院祠가 이루 다 셀 수 없을 지경(地境)이나 거개(擧皆)가 차츰차츰 복설(復設)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의(道義)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선조(先祖)의 院祠만을 復設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더러는 朝令으로 毁撤되었으니 선뜻 復設하기도 어렵고, 또 세상이 바뀌어 이러한 의례(儀禮)를 상의(相議)할 곳도 없으니 차라리 유허(遺墟)에 비(碑) 하나만 세웠다가 후일을 기다려 復設할 수 있다면 이 또한 子孫된 도리(道理)가 아니겠느냐고 하기도 하였기에 모두가 후자의 議論을 옳게 여기고 기꺼이 따랐다.

그래서 병학(秉鶴), 용간(容幹)으로 하여금 이 사연(事緣)을 자세(仔細)히 갖추어 나에게 그 음기(陰記)를 부탁하였다.

나는 일찌기 우리 선대(先代)의 院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의(論議)를 주장(主張)하여 후일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오늘날 李氏의 事緣도 나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堪當)할 수 없으나마 굳이 사양(辭讓)하지 못하였다.

근안(謹按, 삼가살핌)컨데 탄천공(炭川公)의 휘(諱)는 지직(之直)이시고 자(字)는 백평(伯平)이시며 포은(圃隱) 문하(門下)에서 친자(親炙)[5]하였는데, 소도지변(昭悼之變)[6]에 고마극간(叩馬極諫)[7]하여 위절(偉節)이 조야(朝野)를 용동(聳動)[8]하였다.

사인공(舍人公)의 諱는 장손(長孫)이시고 字는 맹윤(孟胤)이시며 총마(驄馬, 어사〈御史〉) 직성(直聲)과 연첩성사(聯帖盛事, 양대훈업〈兩代勳業〉)로 금고(今古, 금석〈今昔〉)에 빛을 떨쳤다.

대사간공(大司諫公)의 諱는 극규(克圭)시고 字는 공서(公瑞)시며 멀리 혼조(昏朝, 연산조〈燕山朝〉)를 피(避)하여 수양산(首陽山, 황해도〈黃海道〉에 있음)을 고수(固守)하니 쌍절(雙節)이 아울러 높고 유풍(遺風)[9]이 늠름(凜凜)[10]하였다.

열사공(烈士公)의 諱는 여극(汝誡)이시고 字는 공신(公信)이시며 의분(義憤)의 칼을 짚고 송천곡(宋泉谷, 상현〈象賢〉)과 동래성(東萊城)에서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운암공(雲庵公)의 諱는 시로(時老)시고 字는 덕구(德耉)시며 성부용(成芙容, 안의〈安義〉)의 문도(門徒)로 인조조(仁祖朝) 때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당하여 창의부란(倡義赴亂)[11]하였다가 중도(中途, 중로〈中路〉)에 이르러 전쟁(戰爭)이 끝났음으로 파귀(罷歸)[12]하였다.

노농헌공(老儂軒公)의 諱는 두남(斗南)이시고 字는 자기(子箕)시며 효우(孝友)의 행실(行實)도 돈독(敦篤)하고, 더욱이 예학(禮學)에 조예(造詣)가 깊어 일시(一時)에 추중(推重)[13]하였다.

대체로 이 육현(六賢)의 令德은 족히 백성(百姓)의 정신적 지주(精神的 支柱)가 될만 하였기에 많은 선비들이 조두(俎豆, 제향〈祭享〉, 조두〈俎豆〉)의 예를 올리면서 숭모(崇慕)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院祠가 있을 때에는 봉향(奉享)을 경건(敬虔)히 하고 훼철(毁撤)된 이후(爾後)에는 비석(碑石)을 세워 흠표(歆表)[14]하고자 한 것은 요컨대 잊지 않으려는 뜻에서 연유(緣由)한 것일 것이다. 잊지 않는 것은 그 道를 높이려는 것이고, 그 道를 높이는 것은 후인(後人)들을 면려(勉勵)[15]하려는 것이다.

후곤(後昆, 後孫)된 자 능(能)히 각자(各自) 스스로 勉勵할 줄을 안다면 그 높였던 바를 높여 더욱 오래일수록 더욱 잊지 않아 院祠가 있고 없음에 마음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스스로 勉勵할 줄을 모른다면 아무리 院祠가 높다랗고 의절(儀節, 禮節)과 제수(祭需)를 풍후(豊厚)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는 고례(古例)만 따르는 겉치레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崇慕에 있어서야 무슨 조건(條件)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六賢의 後裔가 된 사람들은 서로 勉勵하며 때때로 六賢의 유서(遺書)를 읽고 마음과 행동으로 오직 일러주신 법도(法度)에 따르다가 할만한 때를 기다려 옛 원의(院儀)를 회복(回復)하고 전일(前日)의 현송(絃誦)[16]을 다시 잇는다면 지금은 비록 院祠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事實)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찌 서로 노력(努力)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삼가 이 점을 지적(指摘)하여 李氏들에게 勉勵하고 공손(恭遜)히 六賢의 令德이 길이 내세(來世)에 칭도(稱道)되기를 기다리 노라.

임신 일구구이년육월 일(壬申一九九二年六月 日)

광주이씨대종회 근수(廣州李氏大宗會 謹竪)

광복후 신미복양절 화산권오현 근선(光復後辛未復陽節花山權五鉉 謹選)

김영기 근서(金榮基 謹書)

(註)

1) 國朝는 나라의 정치(政治)를 의논(議論) 집행(執行)하는 곳인 조정(朝廷)
2) 搢紳은 지위(地位)가 높고 점잖은 사람,금신(襟紳)
3) 遺制는 전해 오는 제도(制度)
4) 鄕黨은 자기(自己)가 탄생(誕生)했거나 사는 시골의 마을
5) 親炙는 스승에게서 親히 가르침을 받음
6) 昭悼之變은 태조(太祖) 7(1398)년에 일어난 방석 왕자(芳碩王子)의 난(亂)
7) 叩馬極諫은 말고삐를 잡고 諫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8) 聳動은 몹시 놀라서 크게 동요(動搖)됨
9) 遺風은 선대(先代)의 유속적(遺俗的) 기풍(氣風)
10) 凜凜은 위풍(威風)이 있어 어였함
11) 倡義赴亂은 국란(國亂)을 당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장(戰場)으로 달려 감
12) 罷歸는 일을 끝마치고 돌아 감
13) 推重은 추앙(推仰)하여 존중(尊重)함
14) 歆表는 우러러 흠앙(欽仰), 즉 공경(恭敬)하고 사모(思慕)하여 表함
15) 勉勵는 스스로 또는 남을 힘쓰게 함
16) 絃誦은 거문고를 타며 시(詩)를 읊음

■ 운곡서원 구기비 안내문(雲谷書院 舊基碑 案內文)

광주이씨 둔촌선생 휘 집(廣州李氏 遁村先生 諱集)의 장자이신 청백리공 휘 지직(淸白吏公 諱 之直)의 도덕문장(道德文章)과 도학절의(道學節義)를 기리기 위하여 남향(南鄕)의 사림(士林)들이 향당(鄕黨)에서 의논하고, 도산원(陶山院)[1]에서 태학(太學)[2]에 고하여 영조 계사(英祖 癸巳, 1773)에 원사(院祠)[3]를 창녕 성산 운봉리(昌寧 城山 雲峰里)[4]에 창건(創建)하여 광이(廣李)의 선열 육현(先烈 六賢)을 봉안(奉安) 하였다.

정위(正位) 淸白吏公 보문각 직제학(寶文閣 直提學) 증 영의정(贈 領議政) 탄천선생(炭川先生) 諱 之直 자 백평(字 伯平)

서무(西廡) 사인공 휘 장손(舍人公 諱 長孫) 字 맹윤(孟胤) 열사공 휘 여극(烈士公 諱 汝) 字 공신(公信) 노농 헌공 휘 두남(老儂軒公 諱 斗南) 字 자기(子箕)

동무(東廡) 대사간공 휘 극규(大司諫公 諱 克圭) 字 공서(公瑞) 의사 운암공 휘 시로(義士 雲庵公 諱 時老) 字 덕구(德耉)

철종 계해(哲宗 癸亥, 1863) 9월에 예조판서 홍대규 공(禮曹判書 洪大奎 公)이 상언(上言)[5]하고서 완문(完文)[6]과 관자(關子)[7]를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에게 보내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규례(規例)에 따라 예절(禮節)을 거행하게 하였으나 고종 무진(高宗 戊辰, 1868)에 조령(朝令)으로 훼철(毁撤)되었다.

毁撤된 雲谷書院은 자손된 도리(道理)로써 후일에 복설(復設)한다는 의논에 따라 奉安한 六賢의 영덕(令德)이 길이 내세에 칭도(稱道)되게끔 우선 雲谷書院의 舊基碑를 廣李 대종회(大宗會)에서 1992년 6월에 근수(謹竪)하여 1993년 4월 29일에 舍人公派宗會 주관(主管)으로 제막식(除幕式)을 거행하였다.

(註)
1) 陶山院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2) 太學은 성균관(成均館)의 별칭(別稱)
3) 院祠는 雲谷書院을 지칭(指稱)한 것
4) 昌寧 城山 雲峰은 사인공 휘 장손(舍人公 諱 長孫)의 후예 집성촌(後裔 集姓村)
5) 上言은 관원(官員)이 임금에게 글을 올림
6) 完文은 관청의 문서인 관문(官文)
7) 關子는 상관이 하관에게 보내는 공문(公文, 관문〈關文〉)

– 사인공파 20대손 용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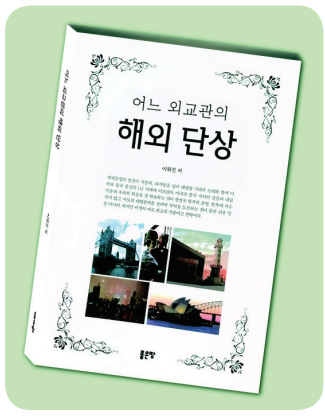
휘진 현종 "어느 외교관의 해외 단상" 책 펴내

본문 좌통례공파 22대손 휘진(輝鎭) 현종이 그동안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최근 "어느 외교관의 해외 단상" 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간하였다.

휘진 현종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건대 정치학과, 서울대 대학원(국제법 석사), 캘리포니아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했으며, 외무고시(제18회)에 합격한 후 외교부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1989년 말레이시아 3등서기관을 시작으로 홍콩, 호주(캔버라), 카타르, 영국, 주 PNG(파푸아뉴기니) 대사와 주시드니총영사를 역임한 후 2016년 해외근무를 마치고 대사급이 되었다.

본 회고록은 저자가 외교관으로 해외 여러 나라를 근무하면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터득한,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풍습,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하여 편협 되지 않고 읽는 이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유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외교관들에게는 지침서이고 일반인에게는 역사서요 교양서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특히, 천여 페이지 이상이 소요될 내용을 단 330여 페이지에 간결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담은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필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산악회 폭우 속 "걷기" 포기하고 좌담회 가져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7월23일 일요일 악천후 임에도 불구하고 아차산역 모임장소에 12명의 회원이 모였다.

회원들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대공원 후문을 통해 빗속을 걷기 시작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더 이상 걷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고 아쉬운 발걸음을 되돌려 나왔다.

대공원 후문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일행은 기왕에 나왔으니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나 나누기로 하고 익수 등반대장의 안내로 두 대의 차편을 이용 왕십리 모 음식점에 자리하였다. 낙지찌게를 곁들인 식사와 음료를 나누며 산악회 발전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8월 행사는 전국 청장년 연합대회 행사 참석으로 가름키로 하고, 9월 행사는 세일사 전 둔촌선조님 묘역 벌초와 정화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날짜는 개인별 일정을 감안하여 9월10일(일요일)로 정하였다. 우중에도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산악회 총무 성수 記 –

하남 시조비위 묘소 벌초 및 정화

경기남부 청장년회(회장 무환)는 지난 7월 22일(토) 회원 10여명이 모여 하남시 덕풍동 소재 시조비위 묘소 벌초와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아침 일찍 출발한 회원들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하남 묘역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 김밥으로 아침을 대충 때우고 7시40분경 산소에 도착하니 멀리 인천 남동공단에서 종목회원가족도 도착해 있었다.

일행은 묘소 앞에 모여 예를 갖춘 다음 산소를 한 바퀴 돌아보니 그동안 가뭄으로 잔디가 말라 걱정했었는데 장마기간 동안 내린 비로 많이 살아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마침 비도 그쳐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벌초작업을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니 무더위로 잠시만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려 준비해간 생수와 캔 맥주로 목을 축여가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였으나 12시경에야 마칠 수 있었다.

모두들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묘역을 돌아보니 흐뭇한 마음속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하였다.

일행은 묘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다음 도저히 그냥 갈수 없어 인근 사우나에 가서 단체로 샤워를 한 후 경기남부 모임장소로 출발하였다.

– 경기남부 청 · 장년회 승기 –

성남화수회 성묘순례

성남화수회(회장 용기)에서는 지난 7월15일(토요일) 조상님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능말)소재 낙안공(휘 진영) 묘소에 성묘순례를 다녀왔다.

낙안공께서는 석탄공(휘 양중)의 9대손이며 절충장군(휘 홍주)의 여섯 아들 중 넷째로, 용인시 수지구 배나무골(이목동)에서 태어나시어 조선조 숙종 때 낙안읍성의 군수 벼슬을 하셨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부동반으로 55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먼저 화수회 경선총무와 낙안공종회 용천총무의 상호 임원진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낙안공 광순 종회장의 환영사와 화수회 용기회장의 답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일행은 성묘를 마치고 시원한 계곡 옆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낙안공 종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와 점심식사까지 준비해주신 낙안공 종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재경화수회 충교 총무와 성주이씨 문중의 이흥렬 임원께서 참석해주어 자리를 더 빛내 주었다.

참고로, 이곳 배나무골(이목동)은 낙안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낙안공 할아버지 집 앞에는 오래된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낙안공께서 낙안읍성에서 고향인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수년째 꽃도 안 피고 다 죽어가던 배나무에서 흰 꽃이 활짝 피며 큰 박만한 배가 주렁주렁 열려 이 배가 예사배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임금님께 진상하니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 마을을 배나무골(이목동)이라 부르라고 하시어 그 때부터 이 마을을 배나무골이라 불렸다고 한다.

현재 이곳 배나무골에는 40여 가구의 후손들이 화목하게 모여살고 있다.

– 성남화수회 총무 경선 記 –

보학 강좌 [1]

1. 보학(譜學)이란? : 족보(族譜)에 관한 지식이나 학문을 말 한다.
2. 족보(族譜) 란? :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도표식으로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系譜)이다.
3. 족보에는 수록되어 있는 내용
   - 족보의 의의와 그 일족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록한 서문(序文).
   - 시조를 비롯한 선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행장, 비문 등.
   - 시조의 분묘도(墳墓圖)나 사진 등.
   -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系譜)
4. 계보(系譜) 란?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

바르게 고칩니다.

〈제 325호〉

■ 1면 좌측 상 9행 : 성호 대종회부도유사
→ 종성 대종회부도유사

■ 2면 생신제 화보 상단 2번째 사진 설명
축관(성호 부도유사) "도축"
→ 축관(종성 부도유사) "독축"

“둔촌청소년문학상 우수작품 소개 ②”

– 중등부 최우수(도지사상) –

“우정의 의미”

이 아 영(장안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의 속담에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이익이 아니라 정으로 사람을 사귀라는 중요한 뜻을 가진 속담인데 우정은 사람이 살면서 친구들과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이다.

엄마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라고 하신다. 정말 엄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라야만 진실된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집 선생님은 고려 후기의 학자, 문인이며 공민왕이 신임하는 신돈의 미움을 사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급히 영천에 있는 친구 최원도에게로 도피하기에 이른다. 그것도 아버지와 함께 그 먼 곳의 친구를 선택해서 찾아갔던 것이다.

최원도는 공민왕 때 문과를 급제하여 벼슬 남대 사간에 오른 학자였다. 이집 선생이 영천으로 도피를 할 때,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있었고, 이때 사람들은 이집 선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최원도는 종에게 이집을 쫓아내고 머물던 집을 불태우라고 하셨다. 잔치가 끝난 이후 최원도는 밤에 몰래 이집 선생을 모셔와 자신의 집 다락방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 주었다.

그들 가족 역시 이집 선생과 그의 아버지를 숨겨둔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여 이집 선생을 도와주었다. 그곳에서 이집 선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장지로 예정했던 나현의 모친 산소 인근에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집 선생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도 최원도는 이집 선생을 돌보아 주었으며 이후, 신돈이 공민왕에게서 죽자 이집 선생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둔촌 이집 선생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최원도의 깊은 우정에 감명을 받았다. 정말 진실된 우정이 무엇이고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말로만 친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땐 충고를 해주고,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옆에서 위로해 주며 있어 주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하고 이 말들을 정말 제대로 행동한 적이 없다.

나와 친한 친구 두 명이 서로 싸울 때가 있었다. 잘못한 친구에게 충고해 주지 않고 오히려 위로만 해주었던 적도 많고, 외면했던 적도 몇 번 있었다. 아마 우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몰랐다면 계속 외면하고 그 친구의 편만 들기에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이집 선생과 최원도 두 분 다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두 집안의 몰살이 달린 위험한 일을 친구라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돌보았던 최원도의 우정을 본받고 싶다.

그동안 나는 친구의 사귐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실 된 우정을 모르고, 실천도 안 했던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우정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더 깊게 생각해 보며,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겠다.

이집 선생과 최원도의 깊은 우정으로 지금까지 둔촌 선생의 후손들은 두 집안의 제사를 함께 지내준다고 한다. 이것이 두 집의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최원도와 이집 선생처럼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 기분이 좋다. 나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고, 힘들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

중등부 심사평

중등부 이아영(장안중 2년)의 〈우정의 의미〉는 둔촌 선생의 피신 과정에서 신의를 지킨 최원도의 예를 도입해 우정에 대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이다. 따라서 중학생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우정의 깊이에 대해 진솔하게 쓴 좋은 글이라 여겨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 둔촌청소년문학상 심사위원장 김건중 –

[사진으로 보는 이달의 ‘소식’]

둔촌백일장 행사장면

성남화수회 성묘순례

재경화수회 신입회원소개와 인사

“광문회” 에서 이왕재 박사 특강

남산 퍼시픽호텔 광문회 모임장면

하남 시조비위 묘역 벌초작업

재경화수회 기우회 임시총회

둔촌선생 명시선 34

雨中名詩 二首

● 雨中獨坐走筆呈圃隱
우 중 독 좌 주 필 정 포 은

睡起簷前點適宜旱中甘澍到來時勸公飮我
수 기 첨 전 점 적 의 한 중 감 주 도 래 시 권 공 음 아

一壺酒莫惜新題喜雨詩
일 호 주 막 석 신 제 희 우 시

우중에 홀로앉아 붓을 달려 포은에게 드리다.

잠에서 깨어보니 처마의 낙숫물 소리 반갑게 들리는데
가뭄 끝에 단비가 오려나보다.
그대에게 한 병 술 권하고 싶은데
희우시(喜雨詩) 한 수 짓는 일 잊지 마소.
※ 喜雨詩 : 가뭄 뒤에 오는 비를 반기며 지은 시

● 晩晴(만청)

晩晴溪水振風凉屋上峯陰半入墻滿眼新詩
만 청 계 수 진 풍 량 옥 상 봉 음 반 입 장 만 안 신 시

收未得一枝花月送淸香
수 미 득 일 지 화 월 송 청 향

늦게야 날이 게이다

늦게 개인 시냇물에 바람 일어 시원한데,
용마루 너머 봉우리 그림자 절반쯤 토담 안에 들어왔네.
눈에 가득한 새로운 시상을 미처 거두지도 못했는데,
가지에 열린 꽃과 달이 맑은 향기 보내네.

廣李 건강코너

이주일(李柱日)원장
– 한의학 박사 –

침향(沈香) 이야기 [22-1]

침향(沈香)은 '백목향(白木香 *Aquilaria sinensis*)' 나무의 수지(樹脂)가 함유(含有)되어 있는 목재(木材)입니다. 성상(性狀)은 목질(木質)이 단단하고 흑색(黑色)이며 중실(中實)하여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준(基準)으로는 沈香 특유의 정유(精油) 함량(含量)이 18% 이상 되어야 '물에 가라앉으며', 이를 沈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木質部에 정유 함량이 워낙 많으므로 색깔은 흑색을 띤 것입니다.

沈香의 성(性)은 온(溫)하고 맛(味)은 맵고(辛) 쓰고(苦) 질중(質重)합니다. 따라서 행기지통(行氣止痛 : 氣를 통행(通行)하게 하고 痛症을 멎게 한다.), 온중산한(溫中散寒 : 인체를 덥혀주고 한사(寒邪)를 흩어지게 한다.) 합니다. 또한 그 특유의 침강하행(沈降下行 : 밑으로 내려가는)하는 성질로 우리 몸의 신경(腎經)에 들어가 능히 역기(逆氣)를 내려주고 신기(腎氣)를 납(納)하여 기역천촉(氣逆喘促 : 기운(氣運)이 역상(逆上)하여 숨이 차고 촉급(促急)한 병증)을 다스리는 요약(要藥)이 됩니다.

沈香을 얻는 白木香(*Aquilaria sinensis*) 나무는 식물학적(植物學的)으로 히말라야(Himalayas) 산맥(山脈)이 원산지(原産地)이며, 현재의 식생(植生) 분포(分布)는 인도대륙 동북부 '벵골(Bengal) 지방', '인도차이나 반도' 및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자생(自生) 및 재배(栽培)되고 있습니다.

沈香은 태우면 수지(樹脂)가 삼출(滲出)되면서 '특이하고 묘(妙)한 향기(香氣)'가 납니다. 따라서 동서고금(東西古今) 어떠한 국가(國家)와 종교(宗敎)를 막론(莫論)하고 널리 제사의식(祭祀儀式)에 쓰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沈香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고가(高價)이면서 귀(貴)했고, 위품(僞品)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웃 나라 중국(中國)에서는 2005년 '白木香(*Aquilaria sinensis*) 나무의 정유 함량이 10% 이상이면 沈香으로 인정(認定)'하도록 중국약전(中國藥典) 기준(基準)을 정(定)했습니다. 中國의 이러한 조치는 沈香을 보다 대중화(大衆化)하고 더 나아가 세계(世界) 천연약물(天然藥物) 시장(市場)을 중의학(中醫學) 기준으로 선점(先占)하고자 하는 의도(意圖)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정유함량이 10%인 白木香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뜹니다. 沈香이 아닌 것이지요. 말하자면 부향(浮香), 승향(昇香)인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기준인 정유함량 18% 이상의 沈香이 아닐 경우 내복약(內服藥)으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中國 여행 가셔서 '한국에는 없는 귀한 약 사온다.'며 괜히 이런저런 약 사오시지 말길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온 약인데 한번 봐 달라."며 제게 내밀었던 것을 보았던 바에 의하면 '지불한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가 거의 100%' 였습니다.

문의 : 李家삼대한의원 (031) 742-1075

이달의 明心寶鑑

父不憂心因子孝 (부불우심인자효)
夫無煩惱是妻賢 (부무번뇌시처현)
言多語失皆因酒 (언다어실개인주)
義斷親疎只爲錢 (의단친소지위전)

[해설]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들이 효성스럽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실수하는 것은 다 술 때문이고,
의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이다.

– 성심편 상(省心篇 上) 中에서 –

"제24차 전국 청장년연합대회" 개최안내

모시는 글

제24차 廣州李氏 靑壯年 聯合大會
"百代之親 우리는 하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선사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청정지역인 전북 고창 선운산으로 전국의 종친 어르신들과 청장년 회원 및 가족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이씨 미래, 우리의 책임" 이다는 슬로건으로 제24차 청장년 연합대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선조님의 유업이신 "백대지친"을 받들고 선조님 바로알기 보학과 문중 어르신들과 청장년의 친교의 장을 마련하여 뜻이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보학사업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역특산품 체험과 생태환경 체험 그리고 퀴즈보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조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하였으므로 아들 손자 며느리, 가족이 다 함께 오셔서 1박 2일 유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디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바랍니다.

2017년 8월

광주이씨 청장년 연합회 회장 종위 올림

◈ 행사일정

1일차 : 2017년 8월 26일(토)

구분	시간	내 용	
만남	13:00~14:00	참가접수 및 숙소배정	
	15:00~18:00	친교의 장 (15:00~17:00)	갯벌체험 (14:00~16:00)
		체험행사 및 이벤트 족구	생태공원탐사와 보물찾기 (16:00~17:00)
석식	18:00~19:00	석 식	마술(18:00~19:00)
	19:00~20:00	보학강의 및 개회식	
	20:00~23:00	지역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보학강의와 캠프파이어 (20:00~23:00)

2일차 : 2017년 8월 27일(일)

구분	시간	내 용
기상	07:00~	기 상
조식	07:00~08:00	조찬간담회
	08:00~09:00	아침식사
퇴실	19:00~	선행후 자유해산

◈ 모시는 곳

- 장 소 : "선운산 유스호스텔"
- 주 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36
- 전 화 : (063) 561-3333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6월 구독 및 찬조			이헌수	20,000	전라북도 익산시	이욱재	20,000	서울시 관악구
이정석	20,000	경상북도 칠곡군	이석화	2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종욱	20,000	충청남도 예산군
7월 구독 및 찬조			이완석	2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은재	50,000	서울시 구로구
이덕재	20,000	경기도 남양주시	이용대	20,000	부산광역시 서구	이병덕	20,000	전라북도 남원시
이용환	20,000	전라북도 전주시	이정환	20,000	대구광역시 동구	이종택	20,000	경기도 이천시
이용건	20,000	부산광역시 남구	이용진	20,000	서울시 성동구	이익수	20,000	경기도 군포시
이용구	20,000	충청북도 충주시	이달수	20,000	충청북도 음성군			
이주홍	20,000	전라북도 익산시	이창재	20,000	충청북도 충주시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현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20,000원 입니다.

지로용지가 없으시면 기업은행 계좌번호
024-059691-01-110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 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7年 8月 1日
<제326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玉 載
編輯人 : 李 錫 演
主 幹 : 李 碩 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